

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후 일상 생활의 회복 및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

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관절센터

송은규 · 선종근 · 박상진 · 문재영

서 론

슬관절의 관절경 시술 후 일상 생활로 복귀 시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. 본 연구에서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슬관절 관절경 시술 후 일상 생활로 복귀 기간 및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절경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 후 2, 4, 8, 12주 및 6개월 때, 설문지를 통하여 환자들의 현재 시행할 수 있는 활동을 조사 하였다.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환자의 성별, 연령, 손상 부위 및 위치, 술전 및 술 후 부종의 유무, 수술 방법, 그리고 동반된 연골 손상에 대하여 평가 되었다.

결 과

술 후 약 3.4주 뒤 대부분의 환자들은 걷기, 앉기 등 가벼운 일상생활의 활동은 가능하였다. 술 후 약 4.7주 후 대부분의 환자는 계단 오르내리기, 쭈그려 앉기 등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 가능하였다. 술 후 슬관절에 부종이 있거나, 동반된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 일상 생활로 복귀가 늦었다.

결 론

대부분의 환자는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제거술을 시행 받은 약 4.7주 후 일상 생활로 회복이 가능하였다. 동반된 연골의 손상이나, 수술 후 슬관절 부종은 일상 생활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.